

격려사

전국비구니회 회장스님과 봉녕사 주지 자연스님, 그리고 후학(後學)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가 제주당 묘엄명사의 넓은 공덕(功德)을 기리며, 열반 제5주기 추모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종단적으로도 뜻깊은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승가(僧家)는 수많은 위기와 법난에도 굴하지 않고, 수행정진의 전통을 면면(綿綿)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부대중이 함께 협심하여 승가유지와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대(先代)의 지대한 원력(願力)에는 물려받은 수행전통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후학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겠다는 깊은 서원(誓願)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대의 공덕위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한 비구, 비구니들과 물심양면의 불사(佛事)공덕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불자들의 원력과 신심(信心)은 현시대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소중한 자산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묘엄스님은 이러한 의미를 수행의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시고, 스스로를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교각(橋脚)으로 삼아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비구니 현대사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며, 후학대중이 깊게 추모하며 덕화(德化)를 찬탄하는 일은, 당연한 도리이자 다시 미래로 전승하겠다는 가치있는 보답(報答)이라 할 것입니다.

비구니 승가의 발전을 위해, 비구니 교단의 성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

을 하신 묘엄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후학들은 씩없이 수행정진하고 승풍진작(僧風振作)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담아낸 금번 학술세미나는 비구니 계율의 흐름과 2600년간의 비구니 전통을 이어 비구니 승가의 발전 대안을 찾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생경>에는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때를 당해서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추모학술세미나를 통해 비구니 승가, 조계종단, 그리고 한국불교 미래의 할 일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견고한 반석(盤石)이 되어, 비구니 스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주당 묘엄명사 추모학술세미나를 거듭 축하하며, 참석하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항상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진하는 오늘의 성취들이 승단(僧團)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11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